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책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밖으로 찾으려면 둘이 되니 안으로 관해야

15면에서 계속

니가 자기가 어떠한 형제 하나를 세워놓고 절을 한 것뿐인데 왜 상대한테다가 절을 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겁니다. 또 내가 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아니 되고 절을 누구에게 했다고 해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다가 절을 하더라도 마음을 동결시켜서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일체를 울리더라도 마음을 동결시켜서,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자기 주인공에게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향복시키고 자기는 자기에게 향복을 받는 겁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 돕고 싶어...

스님, 저는 절에 다니기는 했지만 관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다 공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스님, 어머니가 너무 아프십니다. 주위에 있는 식구들도 모두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킁 놓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됩니다. 스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울에 비치는 것이 당신 모습이지만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이 환상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것도 환상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통 속에서 천차만별의 의식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성, 업보성, 또는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즉 업보성,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 이 모두를 다치는 대로, 누가 아프다 해도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어야 자기 나무가 살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나무가 저 나무에다가 에너지 좀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에너지가 오지 않아요. 자기 뿌리에서만 자기 싹을 살리려고 에너지를 베풀죠. 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공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공체 공심이며 공음이며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한 게 없고, 혼자 먹은 게 없고, 혼자 본 게 없고, 혼자 들은 게 없고, 혼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루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일러줘도 자신이 도리를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는다면 절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라면, 자부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이, 그 슬픈 보살의 이름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약사보살도 내 안에 있고, 또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께도 그렇게 일러드리세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무진장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냥 놓고 걸어 가면 되는지요

항상 스님의 법문따라 생활 속의 수행이라 하여 현 생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냥 놓고 걸어 가면 되는지요. 모든 사람을 잘 이끌어 가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공부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스님! 다 보 버린다면 어떻게 살니까?"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놓는다면서도 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사님께서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돌아가실텐데,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고 가는 말들을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하셨고, 분명히 들었지만, 어디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벌써 지나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다 본래 그대로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고 있다. 놓고 간다.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남아있는 양, 실재하는 양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그만 그 생각에 걸려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술한 고생을 하면, 뇌라뇌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대로 이미 놓고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리 오나라!" 하더니 답박 먹살을 탁 잡고는 "요

생각하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만 어떻게 하면 팔레가 빛나가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애가 탑니다. 너무나 착하게만 생활할 것을 바라는 것도 저의 큰 욕심이지요. 모든 것을 주인공한테 맡겨 놓는지요. 아니면 제가 참회기도로써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지요. 큰스님의 말씀 간절히 청하옵니다.

여기에서는 부처님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해결할 일이 있으면, 자의로서 자기 근본인 주인공자리에 '주인공!' 당신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자기 안으로 관(觀)해야지 밖으로 구하고 찾아보아야 더 미(迷)해지기만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밖으로 찾으려면 이젠 벌써 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벌써 자기 자신을 저 밑에다 내려놓고 밖으로 높은 곳을 향해 허상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직접 관(觀)하라고 합니다. 욕마르면서 직접 자기가 떠서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는 것이지, 하늘이 열 폭이 난 다해도 바깥으로 깰달려서는 어떤 것이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든 살든 어차피 나쁜은 떨어질 것을, 그것을 응크려 쥐고는 어떻게 될까 봐 이

가 어디인지 그것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미스런 일 당하는 꿈 꾸어...

오랫동안 영혼의 스승을 찾아 헤매다가 큰스님을 만나 빙고 이렇게 주인공 공부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스님과 모든 불보살님과 이세상의 모든 은혜를 감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못나도 네 주인공을 믿으시라는 큰스님의 말씀을 등 불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뢰 말씀은 얼마 전에 일곱살난 딸아이가 불미스런 일을 당하는 꿈을 너무 선명하게 꾸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게된 이유를 알아

수 있었습니까만 마음으로 하는 작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져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니까 항상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서 툭고 들어가 앉듯 돌아야 하는 것이죠. 바깥으로 믿고 이름을 찾는 게 아니고 안으로 믿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낮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당신만이 깨우치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일거일동 자기가 움직이고 걸음 떼어놓는 것까지 오로지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체(體)입니다. 얼마나 그 생명들의 체가 많습니까, 그러니 공체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것도 공용(公用)입니다. 모두가 분야 분야를 맡아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야 분야 맡아서 움직여야 하는 자체를 공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공용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원식에서, 즉 말하자면 공식(共食)으로서, 공식이라고도 하고 원식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나가는 데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모습으로서는 집어먹는 데도 시간이 가고 그렇지만, (은) 하나를 집어먹어도 전체를 집어먹어도 집어먹는 사이가 없이 집어먹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주는 사이가 없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식이 공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식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데는 그 여러 가지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이 한데 모두 어우러져서, 즉 말하자면 원공이고 원식이 지, 그게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부.

경제적 발원은 기복인지요

진정 원하는 것을 바라며 기도를 하는데,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절실하겠지만 남이 볼 때 경제적 부담으로 보이는 발원이라면 결국 기복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무척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기복은 발원하지 않으려고, 그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절실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주인공에게 많이도 말을 하지만, 닦쳐있는 현실에 거짓말도 하고 내가 나를 속인 적이 많아서 주인공 찾기가 너무 민망할 뿐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제게 길을 좀 찾게 도와주세요.

원심을 낸다고 하죠. 즉 말하자면 한마음이 되는 거죠. 한마음으로 구성해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공부하는 거 같지만, 이거는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 천문학이기도 하고, 심성 천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원을 낸다는 말은,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한마음을 내가지고 보니까 바깥 경제도 한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얘기도요. 안에서 한마음이 다 한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에서 입자로 화해서, 한마음으로 다 조정을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음을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 속으로 하는 거는 비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찾고 비는 것이 기복입니다. 바깥에 있는 주인공에 관하는 것은 한마음으로 중심에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을 세운 그 마음 한 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첫째 한 찰나에 대뇌를 통해서 증보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제각기 또 벌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야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야 하고... 제각기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해서 될 일이면 그렇게 하고, 물질로 갖추어져야 될 일이면 또 그렇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일이면 또 그렇게 해서 전부 각각 나가서 소임을 마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즉 얼른 쉽게 말하자면 마음 속으로 하고, 저기는 보살 응신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돌아 아니게 또 들어와야 될 텐데 마음이 불안하고 못마땅하고 하니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공리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살 양으로 애쓰지 말고 죽으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천부적으로 일체를 다 구축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축하게 가지고 있던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축한 것을 알고서 여러분한테 일러드리는 겁니다. 구축하게 다 그렇게 있으니까 통신이 되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자신 안으로 진실하게 말합니다.

다가오는 일체의 고난과 역경 재료로 알고 근본에 일임하면 문제 해결되고 부자 상봉돼요

놈아!"하고 주장자로 무조건 깔려왔습니다. 제자가 아파서 "아이구! 아이구!" 하니까, 그 스승께서, "놈! 아이구! 아이구 하는 놈이 누구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 그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놓느냐, 다 놓는다면 어떻게 사느냐 그러지만, 진실로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놓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믿지 못하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믿지 못합니까? 남의 이름을 믿으려면 잘도 믿으면서, 자기를 있게 한 장본인을 왜 못 믿습니까? 그렇다고 놓고 가만히 공(空)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공이 하는 일이라고 참되게 믿고 맡겨 놓으면서 일을 한다면 일도 더 잘되는 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당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보고 돌볼 놓으라니까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모양이죠? 그러나 산다. 죽는다 하는 관념조차 몰록 놓는다면, 더 멋진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지식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스님, 기도로써 빛나는 지식을 바르게 생활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다름이 아니고 착하기만 하면 저의 팔레가 울해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전에 말했듯이 착하기만 했는데 사춘기가 왔는지 자꾸 반항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당황스럽고 격정이 컸습니다. 제가 지은 업으로 인해 말한테서 이런 피로움을 받는가 하는 생각에 저도 참회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항상 걱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장과정이려니

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오히려 '고'가 생기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좀, 자기 근본을 믿고 놓고 지켜보세요!

부와 자가 상봉한다는 뜻

부와 자를 상봉시킨다는 구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근본의 마음, 즉 말하자면 나를 진화시켜서 이끌어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마음 자체 그 테두리는 부(父)가 되며 마음 내기 이전을 말합니다. 마음 내는 것은 자(子)가 됩니다. 전력은 부가 되고 불이 들어오는 전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구에 불 들어오는 작용은 자리가 들어오면 안 되고 전력이 흐르지 않아도 안 되겠죠. 그 가운데 가설이 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참마음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만 무난히 돌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 자체가 전력을 알아야 상봉하듯이 내 안의 근본, 주인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일체의 고난과 역경을 공부의 재료로 알고 그 근본에 일임할 수 있어야 문제는 해결되고, 그 체를 하나 하

부모에게서 몸을 받았어도 영원한 내가 없다면 삼합이 한데 합쳐지지 않아서 태어날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 통치된 것이 바로 우리를 몸 속에 들어있는 의식들입니다. 생명들,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가 둘이 아닌 줄 알아야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자기가 온 곳이 어디인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 것이며, 지금 있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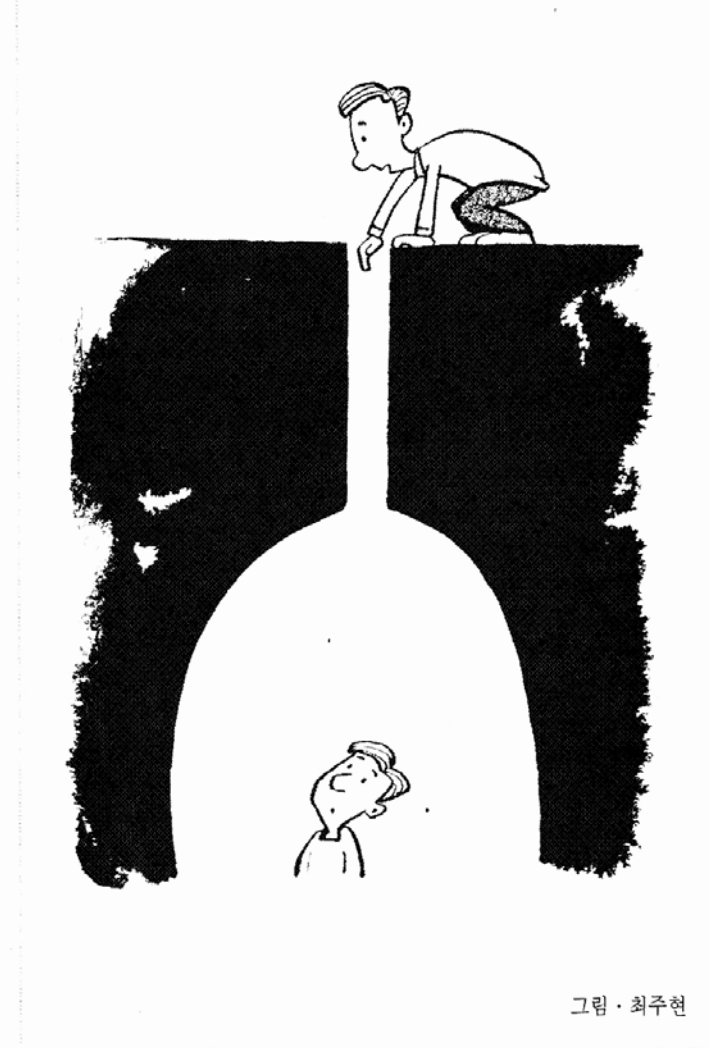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서 계속 관하고 있습니다만 확신이 없어 서인지 겹겹과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이 본래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인해서 광력 통신력 전력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되는 것은 '구정물이 새물로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바뀌어서 거기 놓아야 합니다. 구정물이 나오게 입력이 돼 있다면 구정물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구정물도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새 물로 나오게 할 수 있음을 알고 대처를 해서 다시 놓는 겁니다. 이것이 풀려 놓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믿기는 믿되 굴러 놓지 못한다면 생활에 장애가 있어도 타파를 못합니다. 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대로 어찌 다 타파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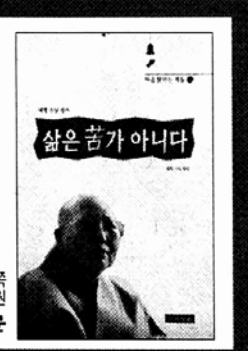
일체가 바로 나임을 알려면...

스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을 볼 때면 그렇지 못하다는 자책이 많이 듭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만사가 본래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런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본래 없어서 일체가 바로 나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막연하지만 합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저의 소견으로도, 일체를 자신과 돌로 보지 않고 근본은 하나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공리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살 양으로 애쓰지 말고 죽으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천부적으로 일체를 다 구축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축하게 가지고 있던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축한 것을 알고서 여러분한테 일러드리는 겁니다. 구축하게 다 그렇게 있으니까 통신이 되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자신 안으로 진실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생(共生)으로 살니다. 우리 몸통이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까닭에 공심(公心)입니다. 그리고 또 공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가복은 안락을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로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문